

'94 대학무용제

'94 College Dance Festival

'94 College Dance Festival

'94대학무용제

1994.10.19~20 / 부산문화회관

10.19 (수) 오후 7:30

봄의 제전

부산경상전문대학 안무·김순금

바다를 위한 신티이

부산여자전문대학 안무·김미숙

5중주

부산여자대학교 안무·하정애

공기의 정

부산여자대학교 안무·김정순

10.20 (수) 오후 7:30

큰집

부산대학교 안무·박은화

파키타

부산대학교 안무·주수광

삶, 그 끝없는 강

부산여자대학교 안무·양학련

나그네들

경성대학교 안무·남정호

봄의 제전



김순금 · 부산경상전문대학 조교수

• 작품내용

먼 옛날, 어느 미개인 부족의 봄의 축제와 슬픈 희생의 이야기

아름다워라, 젊은 목숨들이여.
그대들의 약동은
잠들었던 대지를 깨우도다.

겨울의 지나간 죽음을 헤치고
깨어난 대지여.

풍요를 잉태하기 위하여
여인과 같이 고풍적인 몸짓으로
봄의 태양을 부르도다.

젊음을 희생으로 받고서야
다시 뜨는 태양의 비정함이어.

그들은 마침내
두 남녀를 제물로 뽑았으니,
죽음을 향한 그들의 걸음은
비탄과 머뭇거림과 거부의 몸짓,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열정의 광시곡일지니.

태양을 향해 향해 드디어
죽음은 솟구쳐 오르고
젊음은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이어서
저렇게 슬프도록 아름답구나.

- 안 무 / 김순금
- 음 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 의 상 / 센스티브



출연 / 김도연 · 임선영 · 이문숙 · 박근영 · 서은주 · 최은아 · 최윤경 · 김경리 ·
김지영 · 김은수 · 박수연 · 서숙희 · 오형주 · 이현정 · 주은영

바다를 위한 신필이



김미숙 · 부산여자전문대학 조교수

• 작품내용

부산 사람의 정서는 바다에 친숙하다.
 바다를 접하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부산 사람의 기질은 부산이 '부산'이란 이름을 갖기
 훨씬 전부터 본질적으로 바다와 닮아있다.
 따라서 바다는 부산을 상징하는 가장 큰 지형지물인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성격을 갖는다.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또 때로는 모두를 버리는
 너그러움과 잔혹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부산에는 바다를 진정시키고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는 곳이 많은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다와 함께 해 온 부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래문화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래문물을 받아들이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민족성, 향토성을 지키려 했던
 부산 사람들의 애향심이다.
 바다는 영욕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그 역사를 딛고
 전진하는 부산, 부산 사람의 미래·전망을 온 몸으로
 펼쳐 보여준다.
 바다와 함께 한 부산 사람들의 삶, 그 기쁨과 슬픔을
 춤으로 꾸며본다.
 맺고 품, 그 삶의 장단을 바다의 수장인 용왕을
 위로하는 '신필이'로 형상화 해본다.



- 안 무 / 김미숙
- 음 악 / 편집과 풍물패
- 의 상 / 김영곤

출연 / 김효선 · 곽춘화 · 윤주련 · 오지연 · 김은미 · 박수정 · 박주영 · 손은영 · 신창희 · 유주희 · 윤미영 · 윤선주 ·
 윤유정 · 이상희 · 이승화 · 이유정 · 정은영 · 한정숙 · 홍수경 · 김미영 · 김재욱 · 이선경 · 이현주 · 임행너 ·
 위승희 · 최순옥 · 한정은 · 김경량 · 김인숙 · 전은희 · 최미나

5중주



하정애 ·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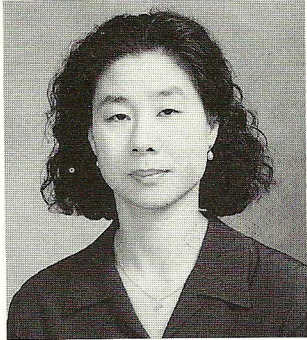
• 작품내용

음악에 있어서 5중주는 각 악기에 특징을 살리면서 또한 각 음색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한다. 이 작품은 음악의 5중주의 특성과 같이 각 무용수들의 특성을 살려 그 인체가 뽐어내는 아름다움과 다섯명의 전체가 이루는 앙상블을 중시하고 있다.

- 안 무 / 하정애
- 음 악 / 슈베르트
- 의 상 / 아라베스크
- 출 연 / 임선진 · 김윤경 · 김경하 · 이소정 · 최정은



공기의 정



김정순 ·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 작품내용

발레작품 '레 실피드'는 발레의 낭만주의를 열어준 너무도 유명한 발레 '라 살피드'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것이다. 이 작품은 아마도 전(全)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레작품 가운데 하나이며 「낭만주의」 시대란 발레의 신기원을 열어 주었을 뿐 아니라 발레리나를 불멸의 존재로 높이 끌어올려 준 것으로도 발레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라 실피드'의 배경을 지닌 '레 실피드'로 줄거리가 없는 단막물로서 쇼팽의 짧은 피아노 소품들로 구성된 음악에 따라 댄서들이 춤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달빛에 비추어진 몽환적이며 천상적인 환상의 분위기가 특징이다.



- 안 무 / 김정순
- 음 악 / 쇼팽
- 의 상 / 로즈

출연 / 문정만 · 민보혜 · 박진숙 · 천민경 · 김미나 · 김갑진 · 임현주 · 김수희 · 문선화 · 손선미 · 이미정 · 박소진 · 김희진 · 강미진 · 박은혜 · 박진아 · 박세진 · 최소영

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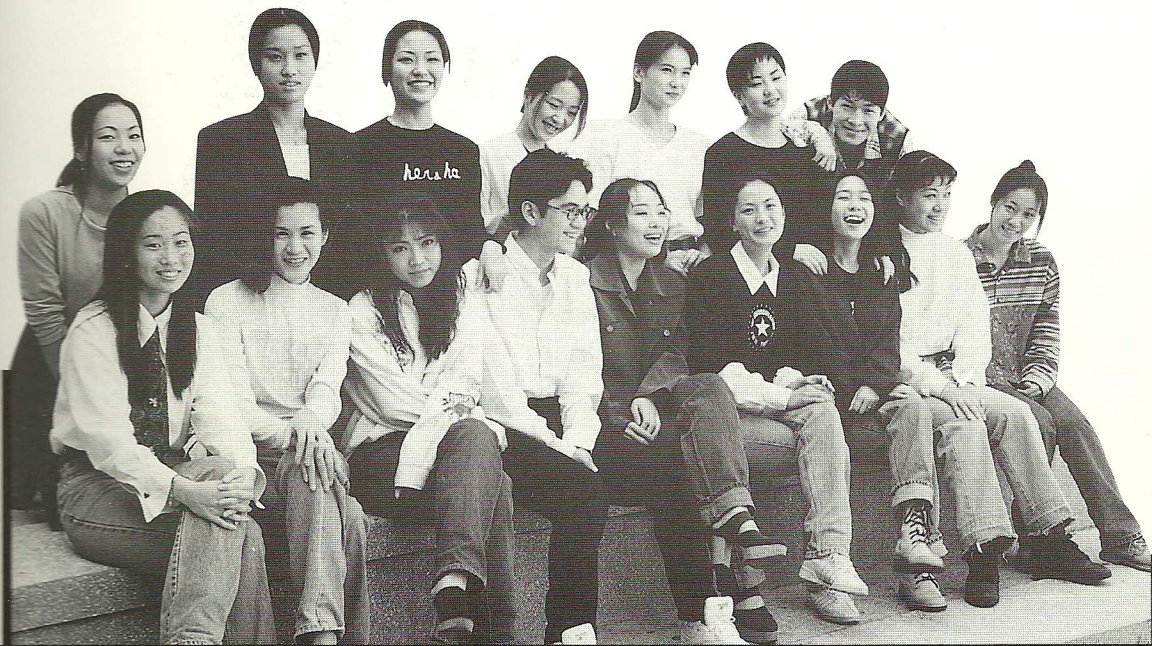


박은화 · 부산대학교 조교수

• 작품내용

내 친구가 나를 이기기 위해 나를 밟고 지나간다.
내 이웃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단다.
하찮은 일에도 침을 뱉고 싸운다.
책가방에 눌러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린단다.
누구의 탓인가?
호루라기 하나로 치료하는 큰 집이 있을까?
한번 가슴을 풀어보자
사랑과 자유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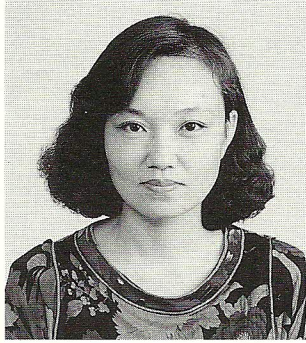
우리들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사회의 모순에 묶여 빠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큰집(은어 : 감옥)의 한 단면속에서 해결책을 갖는
사회의 웃지 못하는 이야기.



• 안 무 / 박은화
• 음악 / STEVE REICH 외

출연 / 장 오 · 이수정 · 진영아 · 박상진 · 서상희 · 김보경 · 정진희 · 송윤경 · 문은아 · 고은미 · 박시영 · 조지은 · 김미진 · 김지현 · 안유리 · 최윤선 · 정경선 · 박근태 · 최인미 · 남지희

파키타



주수광 · 부산대학교 부교수

• 작품내용

오늘날 공연되는 발레 파키타는

19C 후반 러시아 발레의 대표작이다.

왕실의 고상한 기품과 탄성을 자아내는

클래식 발레의 전통으로

재정러시아의 수도 페텔스부르크(현 레닌그라드)의

장관을 맞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안 무 / 주수광
- 음악 / LEON MINKUS



- 출연 / 구금미 · 김영지 · 김은경 · 조민지 · 장종남 ·
강선영 · 윤성은 · 김말주 · 장선미 · 양선문 ·
김수미 · 정지현 · 황선영

삶, 그 끝없는 강



양학련 ·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 작품내용

삶은 흐르는 강이다.
 삶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다.
 삶과 죽음은 같은 에너지 같은 현상의 양극인 것이다.
 밀물과 썰물, 낮과 밤과 같이 이들은 분리되는
 것도 서로 적대나 반대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죽음이 있음으로 삶이 존재하며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다.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난다.
 삶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분리되지 않으며
 끝남과 시작도 없다.
 탄생, 삶, 죽음을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분리는 사고(mind)에 강요된 것이다.

- 안 무 / 양학련
- 음악 / 김영동
- 의 상 / 그레타 리

출연 / 이현미 · 이귀선 · 강향화 · 이민아 · 권복화 · 김미경 · 김은주 · 김지혜 · 박소영 · 안성희 · 양은혜 · 이윤선 · 이필정 ·
 이혜영 · 정필재 · 황정례 · 황진선 · 박순자 · 권은화 · 김명진 · 김민정 · 김미정 · 김은경 · 김희나 · 박상희 · 박정현 ·
 배금자 · 엄혜신 · 유금미 · 이미란 · 최정인 · 편미영



나그네들



남정호 · 경성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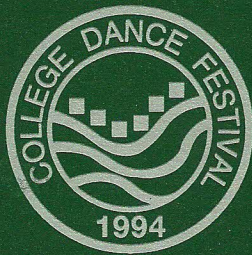
• 작품내용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를 여행중에 만나는 나그네들이 겪는 갈등으로
풀이하여 한국적인 몸짓의 현대화를
무대화 해 본다.

- 안 무 / 남정호
- 음 악 / 메르디트 몽크(Meredith Monk)
- 의 상 / 남정호
- 연습보조 / 허선희



- 출연 / 허윤정 · 임형준 · 강희정 ·
김남진 · 김수진 · 김현숙 ·
왕숙진 · 정은정 · 홍경민 ·
강은영 · 권성임 · 문리욱 ·
윤유정 · 이서진 · 이수재 ·
최선화 · 김정민 · 김주용 ·
김태형 · 김훈석 · 노영경 ·
백경선 · 조영미 · 김보영 ·
안영준 · 이동용



대학 무용제 상징 도안 (EMBLEM)

1. 원 : 하나됨의 의미. 원만과 융합의 표상으로 참가 대학의 우정과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담고 있음.
2. 녹 색 : 평화와 자유의 표상이며 무용공연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3. 백 색 : 순수와 창조로서 비경연 형식이 채택하고 있는 경쟁보다는 우의를 부각시킴.
4. 청색선 : 바다의 상징인 물결의 의미로 부산을 상징함. 진취적인 색상으로 부산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의 무대를 의미한다. 무용에 있어서 도약과 약동의 힘찬 선을 표상한다.
5. 녹색점 : 참가 6개대학을 의미. 청색선과 어울어짐으로서 부산의 지역성을 표현함.
6. 황색선 : 대학의 표상인 학문을 상징하는 지성과 축제의 화려함을 의미한다.